



‘감기’부터 ‘월드워Z’...코로나19로 재조명된 영화들

확산 초기, 정체를 알수없는 바이러스에 공포심 빠르게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은 그 감염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답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상황 속에, 누군가의 상상력을 통해 먼저 경험된 비슷한 사건과 사고들을 다룬 영화들을 보며 관객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금 떨어져 고찰해 볼 수 있었다.

◇ 영화 같은 현실, 현실 같은 영화... ‘감기’ ‘컨테이션’ ‘아웃브레이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각종 전염병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들이 제주목받고 있다. 영화 ‘감기’(김

성수, 2013) ‘컨테이션’(감독 스티븐 소더버그, 2011) ‘아웃브레이크’(감독 볼프강 페터젠, 1995) 등이다. 특히 이들 영화는 예견이라도 한듯 2020년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사건들을 그려내 다시 봐야 할 영화 목록’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수 감독의 ‘감기’는 초당 3.4명이 감염되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창궐하고, 정부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이 된 도시를 폐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국내 작품인 만큼, ‘감기’는 우리나라 관객들에 많은 공감을 일으키며 자주 언급되고 있다. ‘감기’는 전염병이 해외로부터 유입돼 급속도로 전

염을 일으키는 과정과 공포로 인해 우왕좌왕했던 상황 등을 담고 있다.

‘컨테이션’과 ‘아웃브레이크’ 역시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그에 대한 현대 사회의 대응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뒤늦게 대중으로부터 재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홍콩 출장에서 돌아온 여성이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 각국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겪으면서 시작되는 ‘컨테이션’은 전염병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 영화는 영화 말미 바이러스가 박쥐의 변을 먹고 자란 돼지를 요리한 요리사로부터 감염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유사성을 가져 뒤늦게 영화를 본 관객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코로나19 역시 박쥐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는 중론이다.

‘아웃브레이크’는 가상의 모타바 바이러스를 다룬 영화다. 세 영화들 중 유일하게 20세기 영화인 이 작품 역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후 사람들이 겪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렸다.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은 바이러스의 생물학 무기 사용하기 위해 미 육군 전염병의 학연구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비밀리에 이를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해놓았다는 설정이다.

◇ 왜 좀비 영화가 생각날까... ‘부산행’ ‘월드워Z’

좀비 영화들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길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며 이 바이러스를 영화 속 좀비 바이러스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좀비는 애초 부도교에서 주술에 의해 움직이는 시체를 부르는 말이었지만, 현대 영화에서는 강도 높은 전염병처럼 묘사되며 재난 영화들의 좋은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산행’(감독 연상호, 2016)과 ‘월드워Z’(감독 마크 포스터, 2013)다.

‘부산행’은 정체불명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긴급 재난 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안전한 도시 부산에 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그렸다. ‘부산행’은 한 편의 풍자극처럼 달리는 기차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좀

비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인간 군상의 면면을 그려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 각 계층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부산행’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첫 국산 좀비영화라는 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주 소환된다.

‘월드워Z’은 지금까지 나온 좀비 영화들 중 가장 스케일이 큰 작품이다. 세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변이 나오고, 의문의 존재들의 공격으로 도시가 쑥대밭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월드워Z’는 좀비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한 국가를 넘어 전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며 인류에 닥친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부의 세계’ 한소희, 이 구역 분노유발자

뻔뻔함부터 설움 쏟은 오열까지 폭넓은 연기로 눈길



배우 한소희가 밀도 높은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한소희는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여다경 역을 맡아 세련된 외모와 세밀한 연기력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JTBC ‘부부의 세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지선우(김희애 분)와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는 여다경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때 한소희는 분노를 유발하는 뻔뻔함부터, 설움을 쏟

아내는 오열까지 폭 넓은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여다경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눈치챈 고예림(박선영 분)이 “더 이상 입다물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자 “공범인 주제에 이제와서 의리있는 척 웃기잖아?”라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 시청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사실 여다경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유아용품을 고르는 엄마를 보며 감출 수 없는 씁쓸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저녁 식사 자리 우연히 만난 지선우가 난감한 질문을 던져오지만 자리를 피하는 이태오(박해준 분)에 배를 쓰다듬으며 오열해 찢함을 유발하기도.

서늘하고 날선 눈빛 부터 분노, 설움, 불안함이 겹겹히 쌓인 눈물까지 여다경의 내면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그려내며 밀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한소희. 단 4회만에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주목받고 있다.

‘아형’ 2PM 우영 ‘스포츠클럽’ 선보여... ‘흥부자’ 뽐냈다

스포츠+춤 접목한 막춤을 취서 종목 맞히기



2PM 우영이 ‘아형’에 등장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그는 입담과 더불어 출중한 댄스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지난 4일 오후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원조 예능돌’이자 군필자인 우영이 등장했다. 이날 우영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돌아온 원조 예능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우영은 너무 흥분상태인 것 같다는 ‘아형’ 이수근의 말에 “도저히 낫출 수가 없다”라며 방방 뛰기 시작해 웃음을 자아냈다.

우영은 며칠 전 고깃집에서 피오와 마주했던 일화를 전했다. 우영은 “고깃집에서 누가 인사를 하길래 봤더니 피오였다”라며 “엄청 공손하게 인사를 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선배는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너무나 예의 바른 피오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군대에서 많이 봤어요’라며 반갑게 인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은 “고깃집을 대신 내줬다”라고 질문했고 이에 우영

은 당황해했다. 조권은 “그땐 우리가 군대 월급을 받고 있었다”라고 대신 해명해 나서 웃음을 자아냈다. 피오 역시 “고기 사주기엔 그때 내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거들었다.

우영은 군대에서 ‘아는 형님’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9시 뉴스보다 ‘아형’을 더 많이 본다”라며 “여성 게스트들이 나오면 재밌든 재미없든 무조건 보고 남자 게스트가 나와서 재미가 없으면 채널을 돌린다”라고 전해 폭소를 안겼다.

우영은 ‘아형’ 강호동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우영은 “나는 호동이 때문에 수혜를 봤다”라며 “‘스타킹’ 촬영 당시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하는 때였다. 내 몸을 던지면 호동이는 그걸 살려줬다”라고 말해 강호동을 흐뭇하게 했다.

이와 함께 “3~4년 전에 야외 녹화를 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호동이 발걸음하고 반기워서 ‘호동이 형’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며 “호동이 ‘우영아! 이제 빨리 돌아와 아지’ 라고 하더라 그걸 너를 기억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라며 감동했다. 이에 김희철은 “아니다. 그냥 해외 활동 그만두라는 거다”라고 말해 폭소를 안겼다.

또 우영은 2PM의 ‘우리집’이 역주행 하고 있다고 밝히 눈길을 끌었다. 우영은 “요즘 ‘우리집’이 역주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땀을 보면 ‘30대가 되니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말이 많더라.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분들의 땀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우영은 ‘아형’에서 최초로 ‘스포츠클럽’을 선보여 웃음을 선사했다. 우영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것이다. 스포츠와 춤을 접목한 막춤을 취서 종목을 맞히는 거다”라고 설명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농구하는 모습을 흉내 내는 그의 댄스 실력에 멤버들은 “공이 보이는 것 같다”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우영은 JYP에 들어가기 위해 원더걸스 오디션에 참여했던 일화를 전해 놀라움을 선사했다. 우영은 “뽐하기 전부터 이상하게 JYP에 신뢰가 생겼다.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민약에 작은 회사에 내가 뽐하면 그 회사는 가짜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합격 통보 후 돈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에 한 번씩 JYP 오디션에 지원했다. 어느 때처럼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 JYP에서 전화가 왔다. 회사 인턴처럼 3개월 동안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전속계약을 하자고 하더라. 너무 현실감이 없었다”라며 당시 기분을 털어냈다.

‘유즈님+박사장=치느님’...유재석 新부캐 ‘닭터유’

‘놀면 뭐하니?’ 김태호PD가 또 한 번 유재석의 ‘부캐’(부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치킨을 튀기는 ‘닭터유’다. 또 한편 열린고생길에 유재석은 순간 이성을 잃고(?) 김태호PD의 머리를 쥐어박고 말았지만 보는 이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었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김태호PD의 호출을 받고 회식에 참석한 유재석이 닭 튀기기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태호PD는 갑자기 유재석을 불렀다. “회식을 하자고 했더니 왜 카메라 앞에서 하느냐”는 불

만을 터뜨린 유재석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 “치킨을 주문하려고 한다”는 김태호PD의 말에 유재석은 “미쳤구나”라고 탄식해 웃음을 지었다.

“일단 알겠다”고 말한 후 유재석이 향한 곳은 한 조리실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레시피만 보고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다. 치킨 하나를 튀길 때쯤, 밖에서 누군가 “아 뭐냐냐 메뚜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명수였다.

제작진이 박명수를 섭외한 이유는 치킨집 CEO로서 이름을 떨쳤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만한 모습의 박명수는 유재석이



튀긴 첫 치킨을 먹고 닭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를 순간적으로 캐치해 내며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박명수는 “나는 배달 전문이었다”면서 “또 6개월 연력이 안 되겠다”면서 불안해 했다. 두 사람은 예상대로 티격태격하며 치킨을 만들었다.